

衣服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女大生을 中心으로—

鄭 夏 信* · 李 仁 子

建國大學校 家政大學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eds and Factors of Clothing Selection

Ha Sin Chung* and In Ja Lee

College of Home Economics Konkuk University

(82.10.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eeds and factors of clothing Selection.

400 women students from 4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Seoul were selected and tested. And Hwang Jeongkyu's Needs inventory test sheets for need inventory test and the questionnaire based on Lee Eunju's study for factors of clothing selection were given to the sample.

The test data was computerized to get the relationship.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expression of individualit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chievement, aggression, dominance, emotionality, exhibitionism, sex, and autonomy at the .01 level.

(2)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utilit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basement, and affiliation at the .01 level. and with emotionality at the .05 level,

(3)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econom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basement, affiliation, dominance, emotionality, and exhibitionism at the .05 level, and with achievement at the .01 level.

(4)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modest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basement, exhibitionism, and sex at the .01 level.

(5)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conformit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basement, emotionality, and autonomy at the .01 level, and with dominance at the .05 level.

* 建國大學校 忠州分校 衣裳科

* College of Chungju, Konkuk University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時代가 흘렀어도 衣服은 여전히 그것이 입혀지는 時代와 地域의 生活相을 반영해 주고 있다. 衣服은 여러 가지 目的을 充足시키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 두가지 目的, 즉 身體的, 心理的 보호의 실용적인 欲求와 個人의 主體性과 社會的 地位의 表現欲求를 충족시키고 있다. 衣服着用의 가장 基本的 動機는 文化的 環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機能은 社會的 文化的 價値觀에 의해 수정되어가고 있다¹⁾. 文化가 社會成員의 欲求充足을 위하는 것이라면 人間이 衣服을 입게되는 動機도 基本的 欲求의 文化的 反應으로 생각할 수 있다²⁾. 이러한 衣服의 着用動機中, 社會生活에 있어서 所屬의 欲求와, 그와 동등한 欲求는 青年期에 衣服을 통한 同調現象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衣服行動은 그들의 심리적인 여러 現象과 밀접한 關係가 있으므로 그것을 個人欲求와 관련지어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的의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자기 신체와 용모에 관해서 가장 많은 關心을 가진 青年期에 그들의 欲求가 衣服 選擇行動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的의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本 研究을 시도하였다.

2. 研究의 目的 및 範圍

1) 研究의 目的

本 研究에서는 女大生을 對象으로 그들 衣服의 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關係를 밝히려 하며 研究目的은 다음과 같다.

① 女子大學生들의 欲求를 조사 분석하여 그 분포경향을 파악한다.

② 女大生들의 衣服 選擇要因을 조사 분석한다.

③ 衣服 選擇要因이 欲求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한 差異를 보이는 지를 밝힌다.

④ 衣服 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性을 규명한다.

2) 研究의 範圍

衣服 選擇要因과 心理的 要因과를 결부시켜 연구한다는 것은 그 領域이 매우 다양하지만 本 研究에서는 衣服 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性을 연구하는 데에 주로 그 範圍를 한정시켰다.

衣服 選擇要因에 있어서는 朴銀珠³⁾의 衣服 選擇基準을 참고로 하여 5가지 要因으로 나누었으며 個性表現,

實用性, 經濟性, 貞淑性, 同調性등으로 제한시켰다.

欲求檢査는 우리나라에 표준화된 것 중에서 本 研究目的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基本欲求中, 屈從, 成就, 親愛, 攻擊, 支配, 情動, 詭示, 性, 自律등을 알아보기 위한 黃禎圭⁴⁾의 欲求檢査를 사용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1. 欲求의 意味

欲求란 어떤 事物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특정한 行動의 所就에 대한 要求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며 Woodworth는 欲求를 유기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하였다⁵⁾. 내적인 과정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기는 이러한 欲求는 제 1차적인 生理的 欲求와 제 2차적인 心理的, 社會的 欲求로 분류될 수 있는데 欲求의 理論中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A.H. Maslow의 理論으로서 人間行動의 基本欲求로 일곱단계로 열거하고 극히 기본적인 欲求로부터 人間行動이 시작되어 점차 고차적인 欲求段階로 이동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欲求는 個個人이 처한 社會적 環境에 따라 各段階의 欲求를 가지게 되고 그 欲求가 실현되지 못하면 갈등을 자아내면서 不快感을 갖기 때문에 人間行動은 결국 갈등을 해소시키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했다⁶⁾. 한편, Harlow 등은 欲求, 즉 動機는 行動을 낳게 하는 基本的 推進力이며 배고픔, 性, 愛情, 탐욕, 成就, 同僚들의 認定, 이런 것들이 動機誘發의 根源이라고 하였다⁷⁾.

2. 青年期의 衣服行動

衣服行動의 範圍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대부분의 研究들은 나름대로 限界가 두어졌다. Humphrey 등은 審美性, 同調性, 注意性, 便安性, 依存性, 興味性, 管理性, 貞淑性을 衣服 使用에 관한 項目으로 선정했고⁸⁾ 朴贊富는 意識性, 興味性, 流行性, 便安性, 注意性, 依存性, 實用性, 全體 衣服關心性 등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⁹⁾. 이들중 本 研究에서 다룬 衣服 選擇要因은 다음과 같다.

1) 個性表現

개성적으로 衣服을 着用하는 사람은 社會나 集團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心理的 安定性이 높으며 個人的 確信에 대한 강한 信念을 지녔다고 Horn은 그의 研究에서 밝히고 있다¹⁰⁾. 李仁子は 衣服에 있어서 個性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은 충동적이며 실천적이고 과단성이 있는 반면, 수수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제

성이 높고 사려성이 높다고 그의 研究에서 밝히고 있었다¹¹⁾.

2) 實用性

Carolyn kundel이 blue-collar 勞動者와 그의 家族에게 衣服의 使用度와 選好度를 조사한 結果, 옷을 선택할 때에는 몸에 잘 맞는 것, 편안한 것, 가격 등을 첫째로 생각한다고 했으며¹²⁾, Chambers는 美國女性들의 경우 實用性과 편안함을 증시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의 본래 디자인이 美國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용적이고 입기 편한 옷으로 변형된다고 했다¹³⁾.

3) 經濟性

Richard와 Hawthorne은 男子大學生의 價値觀, 身體에 대한 滿足度, 衣服行動問의 關係를 연구한 結果, 經濟的 價値觀과 衣服의 經濟性 및 安樂感에 대한 關心이 높았으며 宗教的 價値觀이 높은 사람은 經濟性에 높은 關心을 나타냈고 社會觀이 높은 사람은 衣服의 신분 상징성, 政治的 價値觀이 높은 사람은 衣服의 經濟性에 關心이 낮았다¹⁴⁾.

4) 貞淑性

Rosencranz에 의하면 옷을 입는 動機는 異性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이며 貞淑性의 概念은 성적인 매력으로부터 야기된다고 하였다¹⁵⁾. Creekmore는 衣服의 貞淑性이 宗教的 價値觀과 相關이 있다고 했으며¹⁶⁾, 朴贊富는 自己評價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사람, 즉 他人과 좋은 關係를 유지하는데 관심있는 女大生은 衣服의 貞淑性을 증시하며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매우 정숙한 衣服을 착용한다고 그의 研究에서 밝히고 있다¹⁷⁾.

5) 同調性

Russel은 青年期의 少女들은 그들의 衣服에서 더 성숙하거나 自信心을 강하게 가질수록 準據集團에 대해 적게 동조한다고 했다¹⁸⁾. Williams와 Eicher에 의하면 青年文化는 同僚集團의 影響이 강하며 이 同僚集團 안에는 個性이 집단 규범에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同調의 現象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個人안에서 同調性에 대한 欲求가 강하게 되는 동시에 個性과 獨特性을 증시한다고 할 수 있다.

3. 欲求와 衣服行動과의 關係

屈從에 관련된 衣服行動에 대한 調查結果를 보면, Ryan은 衣服에 있어서 편안함에 重點을 두는 사람은 자기 통제적이고 사교적이며 權威에 복종적인 傾向이 있으며 衣服의 同調性에 重點을 두는 사람은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사교적이고 복종적인 傾向을 지닌다고 했

다²⁰⁾.

成就欲求와 衣服行動과의 關係에서 Klassen外 2人은 研究結果, 男女모두 自己尊重感이 높은 학생은 衣服의 審美性을 증시하고 衣服을 他人의 注意를 끌기 위한 手段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고²¹⁾ 그리하여 成就欲求가 衣服의 個性表現에 중요한 役割을 담당함을 시사했다. Ryan은 Aiken의 研究結果를 인용하여 衣服의 裝飾性에 重點을 두는 사람은 성실하고 보수적이며 知的 面이 부족하고 호의적이고 사교적인 傾向이 있고, 衣服의 安樂感에 重點을 두는 사람은 성실하고 도덕적, 사교적, 전통적, 복종적인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²²⁾.

Murray는 誇示欲求는 남의 注意를 끌어 인상에 남게 하려는 자기 선견적인 欲求로서 피상하거나 색이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써 남의 눈을 끈다든가 유머등으로 화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²³⁾.

Hartmann은 옷의 問題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신이나 마음의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Ⅲ. 方法 및 節次

1. 道 具

1) 欲求 診斷檢査

本 研究를 위하여 黃禎圭의 欲求 診斷檢査를 사용했는데 이 檢査는 H.A. Murray의 求欲理論에 의한 欲求分類中 주로 心理發生的 欲求의 9個 變因에 대해 225問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個의 欲求變因은 다음과 같다.

① 屈從의 欲求(need for abasement): Aba.

외부의 힘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며 모든 것을 운명으로 체념하고 비난을 감수하려는 欲求

② 成就의 欲求(need for achievement): Ach.

남보다 어려운 일을 해보려 하고 自尊心을 상하지 않으려는 欲求

③ 親愛의 欲求(need for affiliation): Aff.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며 여러 사람과 같이 있기 좋아하는 欲求, 우호적, 사교적, 우정적 性格特性을 나타낸다.

④ 攻撃의 欲求(need for aggression): Agg.

반대를 극복하려는 欲求, 공격적, 투쟁적, 호전적, 파괴적 性格特性을 나타낸다.

⑤ 支配의 欲求(need for dominance): Dom.

人間의 行動을 지배하고 對象에 影響을 미치려는 欲

求, 지배적, 전지적, 단정적, 권위적 性格特性을 나타낸다.

⑥ 情動的 欲求(need for emotionality): Emo.

흥분을 잘하며 조그만 자극에도 불안, 공포, 애정, 슬픔의 情緒를 잘 나타내며 기분의 동요가 심한 性向.

⑦ 誇示의 欲求(need for exhibitionism): Exh.

남의 注意를 끌려는 欲求, 과장적, 연극적, 노출적 性格特性을 나타낸다.

⑧ 性的 欲求(need for sex): Sex.

異性에 대해 關心을 갖는 欲求

⑨ 自律의 欲求(need for autonomy): Aut.

독립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충동에 의해 행동하려는 欲求. 자주적, 독립적, 반항적, 저항적 性格特性을 나타낸다.

2) 衣服 選擇行動 調査

朴銀珠의 研究를 기초로 하여 設問項目을 수정 보완하고 Pre-test에 의해 신뢰도가 인정된 문항만을 골라서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5가지 選擇要因別 領域은 다음과 같으며 각 領域別 問項數는 9個씩이고 5단계 평정법을 사용했다.

F I. 個性表現: 衣服을 통해 個人이 지니는 독특한 身體의 特徵이나 美的要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F II. 實用性: 衣服에 있어서 經濟的이고 實用的이고 손질하기 쉬우며 입어서 편한 것을 말한다.

F III. 經濟性: 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衣服을 구입,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F IV. 貞淑性: 눈에 띄지 않는 衣服을 좋아하며 色相이나 몸에 밀착된 경드, 디자인, 신체의 노출에 있어서 보수적인 것을 말한다.

F V. 同調性: 集團에서 승인받기 위해 소속된 集團의 규범에 의해 衣服을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2. 調査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서울시內 女大生 400명이었는데 이중 실제로 자료처리된 것은 363명이었으며 學科別 人員數는 다음과 같다.

Table 1. 學科別 人員數

學 科			N
의	류	과	25
공	예	과	31
유	아	교 육 과	44
가	정	교 육 과	36
가	정	과	92
의	상	과	135

N : 363

3. 資料處理

欲求 診斷檢査는 檢査要綱에 따라 채점하였으며 本 檢査는 표준화 검사이므로 원점수가 平均점수 이상인 것은 上, 이하인 것은 下位集團으로 구분하여 각 欲求別 頻度를 내었으며, 衣服 選擇要因別 點數는 각 問項에 응답한 값을 要因別로 모두 합하여 各各의 點數의 頻度를 내고, 衣服 選擇要因이 欲求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한 差異를 보이는 지를 알기 위해 t-test로 검증했으며, 衣服 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의 程度를 알기 위해 相關係數를 내었다.

모든 統計는 KIST의 SPSS(Soci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KIMHGH J.349 A에 의해 처리되었다.

IV. 結果 및 論議

1. 欲求 診斷檢査 結果

1) 欲求의 上下集團別 人員數와 百分率

〈表 2〉는 欲求別 上下集團 人員數와 그에 대한 百分率이다. 이 百分率에 의하면, 女大生에 있어서 性的 欲求와 誇示欲求가 높은 사람이 제일 많고 屈從欲과 攻擊欲이 높은 사람이 제일 적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女大生의 心理상태가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女大生들은 性的 매력을 나타내고 싶어하고는 있으나 他人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欲求別 上下集團人員數와 百分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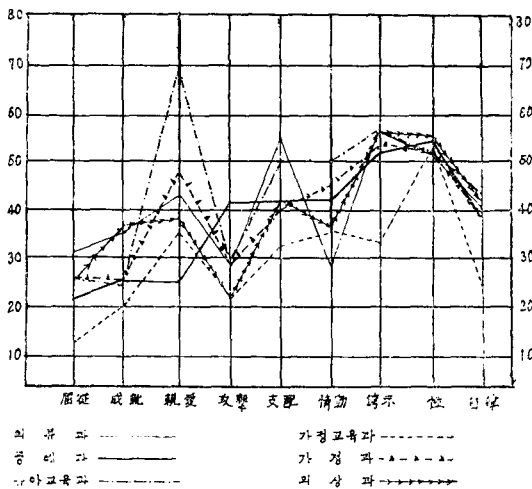
집단	N%		욕구		屈從		成就		親愛		攻擊		支配		情動		誇示		性		自律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上	93	25.6	108	29.8	160	44.1	98	27.0	155	42.7	144	39.7	192	52.9	202	55.7	138	38.0				
下	270	74.4	255	70.3	203	55.9	265	73.0	208	57.3	219	60.3	171	47.1	161	44.4	255	62.0				

Table 3. 學科에 따른 欲求의 上位集團分布

學科	屈從		成就		親愛		攻擊		支配		情動		誇示		性		自律		
	N	%	N	%	N	%	N	%	N	%	N	%	N	%	N	%	N	%	
의류과	832.0	936.0	1144.0	728.0	1456.0	728.0	1456.0	1352.0	1040.0										
공예과	722.5	825.8	825.8	1341.9	1341.9	1341.9	1651.6	1754.8	1238.2										
유아교육과	1227.3	1125.0	3170.5	1329.6	2250.0	2250.0	2556.8	2250.0	1738.0										
가정교육과	513.9	719.4	1336.1	822.2	1233.3	1336.1	1233.3	1952.8	925.0										
가정학과	2527.2	2426.1	4548.9	2628.3	3740.2	4144.6	5054.4	5660.9	3639.1										
의상과	3626.7	4936.3	5238.5	3123.0	5742.2	4835.6	7555.6	7555.6	5440.0										

Table 4. 衣服 選擇要因別 點數의 頻度分布

접수	偶性表現		實用性		經濟性		貞淑性		同調性	
	N	%	N	%	N	%	N	%	N	%
41이상	4	2.1	2	0.5	2	0.5	3	0.8	0	0
31~40	136	37.4	125	34.4	168	46.3	226	61.7	4	1.1
21~30	213	58.7	230	63.4	193	53.2	134	36.9	259	71.4
11~20	10	2.8	6	1.7	0	0	2	0.6	100	27.5
1~10	0	0	0	0	0	0	0	0	0	0
M	29.3		29.0		30.3		31.6		22.2	
S.D.	4.7		4.1		3.4		3.8		3.4	



Graph 1. 學科에 따른 欲求의 上位集團分布

2) 學科에 따른 欲求의 分布(人員數와 百分率)

〈表 3〉은 學科에 따른 欲求의 上位集團의 分布 상터로 屈從欲은 의류과, 成就欲은 의상과, 親愛欲은 유아교육과 攻擊欲은 공예과, 支配欲은 의류과, 情動性은

유아 교육과, 誇示欲은 유아 교육과가 각각 他科에 비해 높은 편이나 대체로 모든 科가 誇示欲에서는 고른 分布상태인데 가정 교육과는 좀 낮은 편이다. 특히 유아 교육과에서 親愛欲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유아 교육과의 특수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2. 衣服 選擇行動

〈表 4〉는 各 衣服 選擇要因別 點數分布와 平均點數를 나타낸 것이다.

各 平均點數를 살펴보면 貞淑性의 點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經濟性, 偶性表現, 實用性, 同調性의 순서였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女大生들이 衣服選擇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要因은 貞淑性이며 중요시하는 정도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要因은 同調性이었다. 특히 同調性은 다른 要因에 비해 그 平均點數가 월등하게 낮았는데 이는 同僚集團의 影響力이 강하게 행사되는 思春期를 거친 후 이미 自身의 主體性과 正體感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므로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의 외모와 同質化되는 것은 원치 않으며 따라서 同僚集團에 별로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Table 5. 欲求別 上下集團中 衣服 選擇要因사이의 有意差 檢證

구분	集團			선택 행동	구분	集團			선택 행동	구분	集團			t				
	上		下			上		下			上		下					
	M	S.D	M			S.D	M	S.D			M	S.D	M		S.D			
屈	F. I	28.74	4.84	29.49	4.61	-1.33	F. I	30.13	4.56	28.99	4.69	2.08*	F. I	30.53	4.56	27.91	4.41	5.54**
	F. II	30.38	3.97	28.47	4.00	3.98**	F. II	28.74	4.22	29.05	4.03	-0.65	F. II	28.90	4.46	29.04	3.61	-0.32
	F. III	30.99	3.34	30.07	3.38	2.28*	F. III	30.41	3.45	30.26	3.37	0.36	F. III	30.65	3.60	29.91	3.09	2.10*
	F. IV	32.99	3.69	3.111	3.67	4.26**	F. IV	31.15	3.76	31.75	3.75	-1.35	F. IV	31.07	3.91	32.18	3.50	-2.83*
	F. V	23.51	3.42	21.75	3.23	4.45**	F. V	22.28	3.74	22.17	3.22	0.26	F. V	22.37	3.32	22.01	3.41	1.01
成	F. I	31.24	4.58	28.47	24.47	5.34**	F. I	30.32	4.34	28.54	4.78	3.64**	F. I	30.06	4.69	28.34	4.49	3.53**
	F. II	29.70	4.57	28.57	3.79	8.64**	F. II	29.19	4.28	28.80	3.92	0.90	F. II	28.83	4.17	29.14	3.96	-0.72
	F. III	31.06	3.51	29.98	3.29	2.78**	F. III	30.65	3.48	30.05	3.31	1.66	F. III	30.42	3.38	30.16	3.41	0.71
	F. IV	31.12	4.09	31.79	3.60	-1.55	F. IV	31.18	3.95	31.89	3.59	-1.79	F. IV	31.10	3.86	32.20	3.55	-2.81**
	F. V	21.68	3.52	22.42	3.27	-1.94	F. V	21.76	3.56	22.53	3.18	-2.16*	F. V	22.44	3.44	21.90	3.25	1.52
親	F. I	29.70	4.87	28.96	4.50	1.48	F. I	29.88	4.79	28.91	4.57	1.94	F. I	30.07	4.69	28.83	4.61	2.47*
	F. II	29.84	4.17	28.28	3.88	3.69**	F. II	29.84	3.82	28.39	4.15	3.37**	F. II	29.26	4.30	28.78	3.93	1.09
	F. III	30.69	3.44	30.00	3.33	1.93	F. III	30.81	3.32	29.97	3.40	2.34*	F. III	30.65	3.54	30.09	3.29	1.54
	F. IV	31.75	3.74	31.46	3.78	0.72	F. IV	32.12	3.80	31.34	3.70	2.18*	F. IV	31.44	3.97	31.68	3.63	-0.58
	F. V	22.33	3.45	22.10	3.30	0.62	F. V	22.86	3.74	21.77	3.02	2.94**	F. V	21.48	3.50	22.64	3.20	-3.25**

F. I. 個性表現, F. II. 實用性, F. III. 經濟性 *p<.05
 F. IV. 貞淑性, F. V. 同調性 **p<.01

다. 이에 비해 다른 要因들의 點數는 同調性만큼은 서로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貞淑性의 要因이 가장 높은 平均을 보여준 것은 韓國社會가 많이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傳統的 保守主義의 價値觀이 女大生들의 思考에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같은 女大生中에서도 本研究의 標集對象이 女子大學校가 주가 되었다는 데에도 原因이 있다고 생각되며 貞淑性 다음으로 點數가 높았던 것은 經濟性, 個性表現, 實用性의 순서였는데 그렇게 큰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3. 欲求別 上下集團에 의한 衣服選擇要因의 有意差

〈表 5〉은 各 衣服 選擇要因이 欲求別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이는 지를 t-test로 검증한 것이다.

㉔ 屈從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나타낸 要因은 $p < .01$ 水準에서 個性表現, 實用性, 同調性, $p < .05$ 水準에서는 經濟性으로 上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屈從欲이 강할수록 衣服選擇에서 實用性, 經濟性, 貞淑性, 同調性의 要因에 關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㉕ 成就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인 要因은 $p < .01$ 水準에서 個性表現, 實用性, 經濟性으로 上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成就欲이 강할수록 衣服選擇에서 個性表現, 實用性, 經濟性의 要因에 關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㉖ 親愛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인 要因은 $p < .01$ 水準에서 實用性으로 上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親愛欲이 강할수록 實用性에 關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㉗ 攻擊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인 要因은 $p < .05$ 水準에서 個性表現으로 上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攻擊欲이 강할수록 個性表現에 關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㉘ 支配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인 要因은 $p < .01$ 水準에서 個性表現은 上位集團, 同調性은 下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支配欲이 강할수록 個性表現에 關心이 많은 반면 同調性에는 關心이 적다고 볼 수 있다.

㉙ 情動性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인 要因은 $p < .01$ 水準에서 實用性, 同調性, $p < .05$ 水準에서는 經濟性과 貞淑性으로 上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情動性이 강할수록 實用性, 經濟性, 貞淑性, 同調性에 關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㉚ 誇示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인 要因은 $p < .01$ 水準에서 個性表現, $p < .05$ 水準에서 經濟性과 貞淑性으로, 個性表現과 經濟性은 上位集團, 貞淑性은 下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誇示欲이 강할수록 個性表現과 經濟性에 關心이 많은 반면, 貞淑性에는 關心이 적다고 볼 수 있다.

㉛ 性的 欲求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인 要因은 $p < .01$ 水準에서 個性表現, 貞淑性으로 個性表現은 上位集團, 同調性은 下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性的 欲求가 강할수록 個性表現에는 關心이 많은 반면, 貞淑性은 關心이 적다고 볼 수 있다.

㉜ 自律性의 上下集團에 의해 意味있는 差異를 보인 要因은 $p < .01$ 水準에서 同調性, $p < .05$ 水準에서 個性表現으로 個性表現은 上位集團, 同調性은 下位集團에서 點數가 높았으므로 自律性이 강할수록 個性表現에는 關心이 많은 반면, 同調性에는 關心이 적다고 볼 수 있다.

以上的 結果에서 외부의 힘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려는 屈從欲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려는 同調性의 衣服 選擇要因에 關心이 많으며 이는 自身이 남을 이끌려는 性向보다는 남에게 이끌리는 性向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비해 支配欲에서는 他人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同僚集團의 影響圈에서 벗어나려는 性向이 衣服選擇에서 個性表現에 關心을 기울이도록 하고 同調性에 대한 關心을 적게 갖도록 유도한다고 생각되며, 情動性이 강할수록 實用性和 同調性에 關心이 많은 것은 情緒가 불안정하여 기복이 심할수록 身體에 便安感을 줄 수 있는 衣服을 선택함으로써 安定感을 얻을 수 있다는 物理的 要素와 衣服行動의 집단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安定感을 얻을 수 있다는 心理的 要素의 作用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誇示欲이 강할수록 個性表現에 關心이 많고 貞淑性에 關心이 적은 것은 自身을 나타내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衣服에서 自身을 나타낼 手段이 될 수 있는 個性表現에 關心이 많고 따라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貞淑性에 關心이 적다고 보아지며 또한 對象이 異性인 性的 欲求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自律性을 보면, 自律性이란 獨自的 行動性向을 말하는 것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獨自的 行動의 경향이 강할수록 自身의 獨立性을 보일 수 있는 個性表現에 關心이 많은 반면, 집단 규범에 순응하는 同調性에 關心이 적은 衣服選擇의 경향이 엿보인다고 생각된다.

Table 6. 衣服 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係數

요인	욕구	屈從	成 就	親 愛	攻 擊	支 配	情 動	誇 示	性	自 律
個性表現		-.093	.316**	.098	.147**	.246**	.169**	.402**	.314**	.176**
實用性		.270**	.194**	.198**	-.076	.069	.131*	-.031	-.073	.073
經濟性		.109*	.201**	.128*	.007	.118*	.123*	.106*	.059	.087
貞淑性		.258**	-.048	.048	-.089	-.097	.089	-.216**	-.222**	-.045
同調性		.257**	-.055	.051	.006	-.103*	.156**	-.006	.056	-.153**

*p<.05

**p<.01

4. 衣服 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關係

<表 6>은 衣服 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係數를 보여 준다.

個性表現의 衣服 選擇要因은 p<.05水準에서 成就, 攻擊, 支配, 情動, 誇示, 性, 自律의 欲求와 有意한 正的 相關을 보였는데 이는 成就, 攻擊, 支配, 情動, 誇示, 性, 自律의 欲求가 강할수록 個性表現爲主의 衣服 選擇傾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증 誇示欲과의 關係數가 가장 높았다.

實用性의 衣服 選擇要因은 p<.05水準에서 情動, p<.01水準에서 屈從, 成就, 親愛의 欲求와 有意한 正的 相關이 있었는데 이는 屈從, 成就, 親愛, 情動의 欲求가 강할수록 實用性爲主의 衣服 選擇傾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증, 屈從欲과의 關係數가 가장 컸다.

經濟性의 要因은 p.05水準에서 屈從, 支配, 親愛, 情動, 誇示, p<.01水準에서 成就의 欲求와 有意한 正的 相關이 있었는데 이는 屈從, 親愛, 成就, 支配, 情動, 誇示의 欲求가 강할수록 經濟性爲主의 衣服 選擇傾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成就欲과의 關係數가 가장 컸다.

貞淑性의 要因은 p<.01水準에서 屈從과는 正的, 誇示와 性的 欲求와는 負的으로 有意한 相關이 나타났는데 이는 屈從欲이 강할수록, 誇示와 性的 欲求가 약할수록 貞淑性爲主의 衣服 選擇傾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同調性의 要因은 p<.05水準에서 支配와는 負的, p<.01水準에서 屈從, 情動, 自律과는 正的으로 有意한 相關이 있었는데 이는 屈從, 情動의 欲求가 강하고 支配, 自律의 欲求가 약할수록 同調爲主의 衣服 選擇傾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V. 結 論

1. 女子大學生들의 欲求檢査 結果, 그 분포 경향을

보던 性的 欲求와 誇示欲이 上位集團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屈從欲과 攻擊欲이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學科에 따른 欲求分佈를 보면 成就欲은 의상과, 支配欲은 의류과, 誇示欲과 親愛欲은 유아 교육과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가정 교육과는 모든 欲求에서 最下位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고할 만한 일이다. 한편 유아교육과의 親愛欲은 他科에 비해 높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2. 女大生들의 衣服 選擇要因을 조사한 결과, 女大生들은 衣服選擇에서 貞淑性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다음으로 經濟性, 個性表現, 實用性, 同調性의 순서였는데 同調性是 일등히 點數가 낮았다.

3. 欲求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衣服 選擇要因은 다음과 같다.

1) 屈從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實用性, 經濟性, 貞淑性, 同調性이었다.

2) 成就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個性表現, 實用性, 經濟性이었다.

3) 親愛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實用性이었다.

4) 攻擊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個性表現이었다.

5) 支配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個性表現과 同調性이었다.

6) 情動性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實用性, 經濟性, 貞淑性, 同調性이었다.

7) 誇示欲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個性表現, 經濟性, 貞淑性이었다.

8) 性的 欲求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個性表現과 貞淑性이었다.

9) 自律性의 上下集團에 의해 有意差를 보인 要因은 個性表現과 同調性이었다.

4. 衣服 選擇要因과 欲求와의 相關關係는 다음과 같다.

- 1) 成就, 攻擊, 支配, 情動, 誇示, 性, 自律의 欲求가 강할수록 個性表現爲主의 衣服 選擇傾向性이 컸다.
- 2) 屈從, 成就, 親愛, 情動의 欲求가 강할수록 實用性爲主의 衣服 選擇傾向性이 컸다.
- 3) 屈從, 成就, 親愛, 支配, 情動, 誇示의 欲求가 강할수록 經濟性爲主의 衣服 選擇傾向性이 컸다.
- 4) 屈從의 欲求가 강하고 誇示, 性의 欲求가 약할수록 貞淑性爲主의 衣服 選擇傾向性이 컸다.
- 5) 屈從, 情動의 欲求가 강하고 支配, 自律의 欲求가 약할수록 同調性爲主의 衣服選擇傾向性이 컸다.

Reference

- 1) McJimse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 2) 최흥기譯, 社會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 3) 朴銀珠, “의복 선택 기준에 관한 요인 구조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원, (1982).
- 4) 黃鶴生, 欲求診斷檢査: 大, 一般用, 서울: 크리안 테스트링 센터, (1980).
- 5) Woodworth, R.S., Dynamic Psycholog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 6)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rper and Row Publisher, (1974).
- 7) Harlow, H.F., McGaugh, J.L., and Thompson, R.F., Psychology, Sanfrancisco: Albion P.C., (1960).
- 8) Humphrey, C., Klassen, M., and Creekmore, A.M.,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7, (1971).
- 9) 朴贊富, “의복태와 욕구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논문집, 「제 6집」 123, (1980).
- 10) Horn, M.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38).
- 11) 李仁子, “여대생의 의복디자인 기호와 흥미간의 상관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2, 673-674, (1974).
- 12) Kundel, C., Clothing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Blue-Collar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229-230, (1976).
- 13) Chambers, B.G., Color and Design, N.Y.: Prentice Hall, Inc., (1951).
- 14) Richard, E.A. and Hawthorne, R.E.,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193, (1971).
- 15)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s, N.Y.: The Macmillan, (1972).
- 16)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 17) 朴贊富, op. cit., 175-194.
- 18) 李玉順, “자아 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자성에 관한 의복 심리학의 연구” p.19에 인용됨. Russel, S.S., Conformity in Dress as Expressed by certain Clothing Attitudes of a Selected Group of Adolescent Girl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0).
- 19) William, M.C. and Eicher, J.B., Teen-Ager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58, 430-461, (1966).
- 20) Ryan, M.S., op. cit.
- 21) Humphrey, C., Klassen, M., and Creekmore, Am op. cit.
- 22) Ryan, M.S., op. cit.
- 23) Murray, H.A., Exploration in Personal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34).
- 24) Hartmann, G.W., Clothing: Personality Problem of Social Issue, *Journal of Home Economics*, 205-298, (1949).